

아시아공동체론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강의는 전반적으로 한중일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전반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꽤나 많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와 세계의 맹주 국가인 만큼 일본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이다. 최근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아베정권은 지나친 우경화 경향을 보이며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내의 반한감정은 점점 거세지는 추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전후 전례 없는 우경화 행보를 보임에 따라 반일감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까지 날조를 시도하며 한국과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공동체를 위해서는 일본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우경화 행보를 이해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본이 왜 저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행동의 바탕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이해해야만 이러한 행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건설적인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강의를 들으며 항상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아시아공동체의 실체에 관한 것이었다. EU와 같은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함은 다수가 동의하지만, 그 실체와 그 형태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강의들 또한 그러했다.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주제 아래 강연을 하고 수업을 듣지만, 강연들의 주제와 내용이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보다는 전후 일본의 역사, 한일금융협력, 일본의 유교문화 등 독립적인 각각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 속에서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 이해관계에 대해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요소를 몇몇 수업에서 찾아보자면 이러하다. 아베 마코토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한국의 성장과정에 있어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같은 공동체에 묶였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부진한 국가들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융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경제적 해법을 일부 제시해주었다. 한중일의 유교에 대해 배웠던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 수업에서는 차이와 이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개 한중일이 공통의 문화권 속에 얹혀있고, 그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 3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가장 손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만큼 한중일의 공통이해관계는 그렇게 깊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꼭 접점이 존재해야만 훌륭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해국제문제연구원에서 오신 공커위 연구원님의 수업 또한 상당히 인상 깊었다. 공커위 연구원님은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시선을 골고루 제시해주셨다. 이를 통해 북한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일차원적인 시각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다른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서는 북핵문제가 북한의 문제이며 북한 문제가 곧 북핵문제와 직결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북한 내부결속의 문제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수업은 이왕휘 교수님의 동아시아지역생산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강의였다. 이왕휘 교수님의 수업은 기존에 무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절대적 기준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무역의 절대량보다는 무역의 부가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셨다. 처음에는 왜 절대적 무역량보다 무역에서의 부가가치가 더 중요한지 쉽사리 동의하기는 어려웠지만,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새로운 무역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가가치 무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위 수업들에서 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모든 수업들이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론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모든 수업은 사실 아시아공동체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업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EU가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공동체는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이 수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여러 학생들의 생각은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한번쯤은 가져봤다는 것이며 이는 추 후 아시아공동체가 논의될 때 매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